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간호대학 · 서울성모병원 · 여의도성모병원 · 의정부성모병원 · 부천성모병원 · 은평성모병원 · 인천성모병원 · 성빈센트병원 · 대전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 개원

국내를 넘어 아시아 소아 의료 선도하는 어린이병원 도약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중증·희귀난치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을 개원했다. 개원 행사에는 내·외빈과 교직원들을 포함해 약 400명 가량이 참석해 축하와 기대를 더했다.

어린이병원이 수호성인으로 삼은 성 니콜라스(Saint Nicholas)는 산타클로스 유래의 모델이 된 가톨릭 성인(聖人)으로, 3세기 동로마제국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자비로운 선행을 실천했던 주교다. 환아들이 현재의 질병을 넘어 미래까지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내를 넘어 아시아 소아청소년 의료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병원은 소아청소년센터 시절부터 축적해온 다학제 협진 및 교육 시스템과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소아암 ▲희귀·

난치성 질환 ▲신생아·미숙아 ▲소아 중환자 진료와 같은 고난도 치료 역량을 입증하며,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소아의료기관으로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건강한 미래’를 위해 조기진단-치료-사후 관리-복귀 지원을 아우르는 전인적 관점의 소아의료 모델 표준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소아 전문 의료체계 생태계 복원이라는 원대한 목표 아래, 소아청소년과 14개 세부 분과 전문의 51명과 15개 협력 전문과 전문의 23명 등 총 74명의 전문의가 참여해 운영되는 어린이병원은, 폭넓은 의료진 구성을 바탕으로 초국소 미숙아 치료를 비롯해 선천성질환, 소아암 등 고난도 중증질환에 대한 다학제 진료를 제공한다.

개원식 행사에서 서울성모병원장 이지열 교수는 “서울성모병원이 가진 최고 수준의 임상·연구·교육 인프라를 바

탕으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고 국가적 소아 필수 의료 체계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초대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장 정낙균 교수(소아청소년과)는 “가족 중 중증질환 아이가 생기면 본인이 겪는 정서적인 문제를 비롯해 병원비에 대한 부담, 그리고 환자의 형제나 자매가 부모와 겪는 갈등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뒤따른다.”며, “앞으로도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은 희귀·유전자질환, 소아암, 감염 등 중증 소아 진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갖춰나가는 한편, 질환의 치료에 앞서 예방과 조기 진단으로 환아들의 몸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복합적인 갈등과 아픔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전인 치료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니콜라스 어린이병원 개원식

| 일시 | 2025년 12월 23일(화) 11:00 | 장소 | 서울성모병원 대강당

여의도성모 안과병원 개원 4주년

“가톨릭 산하 최초·유일 안과병원… 임상 신뢰로 4년을 증명하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 안과병원(병원장 나경선)이 2026년 1월 19일 개원 4주년을 맞았다. 여의도성모 안과병원은 가톨릭 의료기관 산하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안과 전문병원으로, 2022년 1월 독립된 안과 진료 시스템을 갖춘 전문 병원으로 출범했다.

출범 이후 병원은 외래 공간 확장과 안과 전용 수술센터 구축을 통해 진료·수술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왔으며, ‘규모의 확장’보다는 치료 성과에 대한 신뢰를 축적하는 데 집중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내장 수술 연 3000례 이상... 술기·기술·환자 경험을 아우른 진료 체계

여의도성모 안과병원은 2023년에 이어 2025년에도 연간 백내장 수술 3000례 이상을 달성했다. 이는 단순한 수술 건수 증가가 아니라 진료·수술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수술 전후 환자 동선 개선, 회복 관리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

의료진은 오랜 기간 축적된 백내장 수술 술기에 더해 최신 펄스 레이저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고위험 백내장 수술에서도 안정적이고 일관된 수술 결과를 구현하고 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 체험 클리닉을 운영하며, 수술 전 시뮬레이터 장치를 활용해 환자가 수술 후 시기능을 사전에 경험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 탈구 등 합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공수정체 교환술과 재수술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고난도 증례에 대한 치료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 기증 각막이식 전국 1위... 각막이식의 공공성 지켜

각막 분야에서는 국내 기증 각막이식 실적 전국 1위라는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졌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기증 안구를 이용한 각막이식 153건 중 30건을 여의도성모 안과병원이 시행했다. 특히 2024년 전공의 공백 상황에서 전문의가 직접 기증자 지역으로 이동해 안구 적출을

시행하고, 각막이식이 필요한 환자께 수술을 지속했다.

외래 운영 혁신... 진료 접근성과 연속성 강화

진료 운영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여의도성모 안과병원은 2025년 10월 하루 외래 환자 587명을 기록하며 개원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일반 진료 재개, 토요 진료 확대, 진료 세션 재편, 직군 간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환자 흐름을 효율적으로 개선한 결과다.

녹내장 원스탑 진료(문정일·정유혜·온경 교수), 난치성 망막질환 진료(노영정·신정아·전승희 교수)가 전문 진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드물게 신경안과·소아·사시(박미라 교수), 성형안과 진료(백지선 교수) 동시에 갖춘 병원으로, 기능과 심미, 성장기 안질환을 아우르는 폭넓은 진료 영역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안질환 환자들이 한 병원 안에서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 진료 체계를 구축했다.

산·학·병 협력 기반 연구·기술 성과... “치료로 이어지는 연구”

임상 연계형 연구를 통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치료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노영정 교수팀은 중심성망막염 치료를 위한 새로운 마이크로초레이저 치료법을 개발했으며, 황호식 교수팀은 광학 연구를 바탕으로 노안 조절을 위한 안경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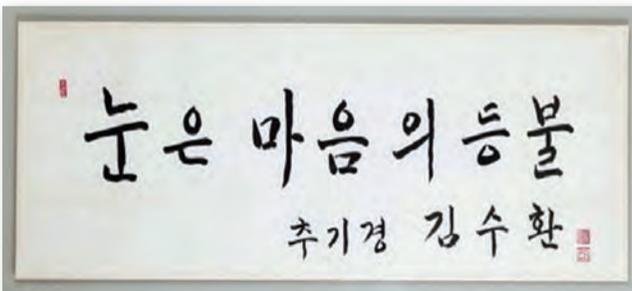
발을 추진하고 있다. 나경선 교수팀은 재생의료 실험실 기반 항염증 하이드로겔과 항균 콘택트렌즈의 임상 적용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여의도성모 안과병원은 이러한 산학병 협력 연구를 통해 진료와 연구의 경계를 허물고, 치료 성과로 이어지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생성형 AI EMR 고도화... 진료 현장 중심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 역시 병원의 주요 과제다. 여의도성모 안과병원은 안과 진료 특성에 맞춘 생성형 AI 기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안과병원 시팀(황웅주 교수)은 임상 현장에 최적화된 고도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질환별 표준 서식 정교화를 통해 의료진의 기록 부담을 줄이고 진료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특수 클리닉’ 전략... 질환과 환자 중심 진료 강화

개원 4주년을 맞아 병원은 질환·환자 중심의 특수 클리닉 체계를 본격적으로 확장한다. 중심성망막염 클리닉(노영정·신정아·전승희 교수) 다초점 인공수정체 체험 클리닉(황호식 교수) 과 감광선안병증 클리닉(박미라, 백지선 교수), 특수 콘택트렌즈(윤혜연 교수), 안구재건 클리닉(나경선 교수)으로 다양화하고 있으며, 환자의 진료 대기 단축을 위해 토요 패스트 트랙 안과 검사를 개설했다.



“눈은 마음의 등불”... 다음 4년을 향해

여의도성모 안과병원은 가톨릭 의료기관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는 가르침을 이어가며, 소외계층을 위한 개안 수술과 각막이식 활성화 등을 통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의료 현장에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나경선 안과병원장은 “개원 4년은 양적인 성장보다 치료 성과에 대한 신뢰를 쌓아온 시간이었다.”며 “환자 중심 진료라는 본질을 지키면서도 최신 의료기술과 디지털 혁신, 연구 성과를 임상에 빠르게 연결해 미래 의료를 선도하는 최고의 안과병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유방암 치료 반응 결정하는 유전자 초미세 변화 발견

유방암 치료 내성 · 전이 예측할 새로운 바이오마커 제시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초정밀의학사업단 정연준 교수(교신 저자), 박지연 교수(제1저자) 연구팀이 유전자 내 미세한 구조 변화가 암의 특성과 치료 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연구팀은 세포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의 핵심 성분인 RPS24 유전자에 주목했고, RPS24의 변이체 중 'ex4:3bp'라는 변이체를 여성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유형의 유방암에서 발견했다. 또한 유방암 세포주 모델에 치료제를 투여했을 때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포에서 'ex4:3bp' 변이체의 발현이 증가함을 확인했다. 반면, 내성이 생긴 암세포주에서는 이 변이체의 발현이 감소함을 밝혀냈다. 이는 이 변이체가 유방암 환자의 약물 내성 발생을 모니터링, 전이 가능성을 예측하는 의료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연구 결과는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IF=12.8) 2025년 11월호에 게재됐다.



골관절염 세포치료 작동 원리 규명

연골 재생에 직접적 관여가 가능함을 확인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첨단세포치료사업단 주지현 교수, 의과대학 유도만능줄기세포 응용연구소 임예리 교수(공동 교신저자), 국내 바이오기업 (주)입셀 남유준 박사, 박나래 박사(공동 제1저자) 공동 연구팀이 골관절염 치료용 차세대 세포치료제가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식과 작동 원리를 과학적으로 규명해 국제학술지 《Science Advances》(IF=12.5) 2025년 12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를 이용해 만든 3차원 연골 조직체인 연골 스페로이드를 연골세포로 분화시킨 뒤 주사로 관절 안에 넣을 수 있는 치료제 'MIUChon'을 개발했다. 또한 이 치료제가 손상 부위에 직접 연골 조직을 형성하는 '직접 재생 작용'과 관절 안의 염증을 줄이고 연골이 다시 만들어지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 작용'을 함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연골세포치료제가 왜,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 명확히 설명해 낸 것이다.



피 한 방울로 알츠하이머 치매 94% 잡아낸다

완전 자동화 면역측정 플랫폼으로 실제 임상 적용성 입증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뇌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임현국 교수 연구팀(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유현 교수)은 혈액 내 특정 단백질 비율을 이용해 알츠하이머병 진단 기술의 정확성을 검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내 알츠하이머병 환자 등 총 262명을 대상으로 혈장 내 Aβ42 대비 p-tau217 단백질 비율을 측정하고, 이 결과를 뇌 아밀로이드 PET검사 및 타우 PET결과와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완전 자동화 면역측정 플랫폼을 통해 측정된 혈장 p-tau217/Aβ42 비율은 뇌 아밀로이드 PET 검사의 양성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어 약 94%의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특히 이번 연구는 Beckman Coulter사의 자동화 면역측정 플랫폼을 활용해 혈액 내 알츠하이머병 표지자들을 정량한 것으로, 이러한 완전 자동화 혈액검사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Alzheimer's & Dementia》(IF=11.1) 2025년 11월호에 게재됐다.



mRNA 백신 전달의 '크기 비밀' 풀다

지질나노입자 크기와 유전자 전달 효율의 상관 관계 규명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합성생물학사업단장 구희범 교수(교신저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 김부건 박사(공동 제1저자), 박철희 연구원(공동 제1저자) 공동 연구팀이 mRNA 백신과 유전자 치료제의 핵심 전달체로 활용되는 지질나노입자의 크기가 세포 내 전달 효율과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연구팀은 지질나노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세포 안으로 더 잘 들어가고 단백질 생성량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지나치게 작은 지질나노입자의 경우 몸 속 환경에서 구조가 불안정해지고 입자 표면을 보호하는 물질(PEG)이 떨어져 나가면서 오히려 전달 효율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혀냈다.

연구 성과는 나노바이오 분야 국제학술지 《Journal of Nanobiotechnology》(IF=12.6)에 게재되었다.



활액 내 미세플라스틱 확인 및 유해성 증명

관절 내 미세플라스틱 존재와 면역학적 병태기전 규명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 유승아 교수(공동 교신저자)와 이수현 연구원(제1 저자), 포스텍-가톨릭대의생명공학연구원 김완욱 교수(공동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환경기술공학과 김영민 교수의 공동 연구가 국제학술지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IF= 11.3)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활액(관절을 둘러싼 활막에서 분비되는 관절액)을 분석, 폴리스티렌 미세플라스틱(PS-MPs)을 검출해 '미세플라스틱이 신체 내부 조직에 축적될 수 있다'라는 가설을 류마티스관절 조직에서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 또한 세포실험, 동물 실험을 통해 이 미세플라스틱이 면역계를 자극해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환경 문제와 인류 건강을 연결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항암화학방사선치료, 2주로 단축해도 효과 동일

성빈센트병원 이종훈 · 서울성모병원 최규혜 교수 공동연구 발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이종훈(교신저자)·김성환(공동 제1저자) 교수와 서울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최규혜(제1저자)·장홍석(공동 제1저자) 교수팀이 직장암 환자의 항암화학방사선치료 기간을 기존 6주에서 2주로 단축해도 치료 효과는 동일하고, 중증 위장관 부작용은 오히려 더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공동 연구팀은 환자의 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치료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단기 치료 요법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총 367명의 직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3상 임상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방사선 치료 후 주요 치료 효과는 6주 표준 치료군과 2주 단기 치료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중증 위장관 방사선 치료 부작용은 6주 표준 치료군보다 2주 단기 치료군에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미국 외과학회 공식 학술지인 《Annals of Surgery》(IF=6.4)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세포의 '형태'에 길을 묻는 과학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지윤 교수

질병은 언제 시작되는가. 그동안 의학은 유전자와 단백질에서 답을 찾아왔다. 돌연변이, 신호 전달 경로, 분자의 결핍 등 현대 생의학의 언어들은 수많은 치료법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김지윤 교수는 질병을 단순한 '망가진 신호'가 아닌 그 앞 단계인 '흐트러진 구조'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 중심에는 세포 내 물류 허브인 '골지체 (Golgi apparatus)'가 있다. 단백질을 가공해 목적지로 보내는 이 정교한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 세포는 이미 질병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가 강조하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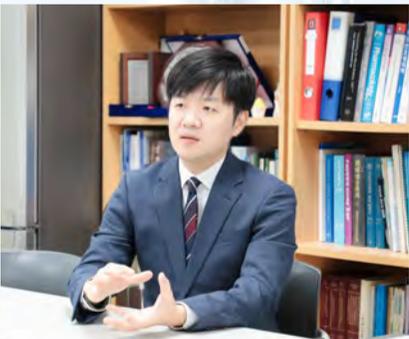
“제 연구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골지체 기반의 질병 제어 연구’입니다.”

정통의 경로 위에서 던진 파격적인 질문

김지윤 교수의 이력은 이른바 '정공법'을 따랐다. 연세대학교 의전원과 약리학교실 박사 과정을 거쳐 2020년 가톨릭대학교에 합류해 현재 부교수가 되기까지 탄탄한 내공을 쌓았다.

그러나 그의 연구 주제는 주류의 시각에서 한 발 비껴나 있었다. 그는 일반적인 암 연구와는 달리, 현미경 속 세포 내부의 '형태 변화'에 주목했다. 구조가 바뀌는 순간 기능은 어떻게 왜곡되는가, 그리고 그 변화는 질병의 원인인가 혹은 결과인가.

그의 비유는 명쾌하다. 세포는 하나의 도시이며, 골지체는 그 도시의 물류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붕괴하면 아무리 좋은 부품을 생산해도 도시는 마비된다. 김 교수에게 골지체는 질병이 본격화되기 전 가장 먼저 깜빡이는 '구조적 경고등'이다.



약리학, 기전(Mechanism)을 치료로 번역하는 언어

김 교수가 약리학을 선택한 이유는 질병의 원리에 대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를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약리학은 질병 기전을 치료 전략으로 연결하는 '번역의 언어'다.

이러한 관점은 교육 철학에도 녹아 있다. 그는 학생들에게 단순 암기보다 '작동 원리'를 묻는다. 예비 의료인에게 필요한 것은 과편화된 지식이 아니라 복잡한 현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해석하는 통찰력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세포의 우체국'이 무너질 때 벌어지는 일들

골지체는 단백질에 주소를 붙여 배송하는 '세포의 우체국'이다. 김 교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골지체의 형태가 무너지는 현상에 집중했다.

골지체가 과도하게 응축되거나 과편화되는 구조적 붕괴는 특정 질환에 국한되지 않는다. 암과 치매라는 전혀 다른 질병에서 공통적인 구조 변화가 관찰된다는 점은 세포가 질병 전 단계에서 이미 같은 방식으로 이상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난치성 위암, '골지 종양학 (Golgi Oncology)'의 개척

김 교수는 난치성 위암 연구를 '골지 종양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했다. 그는

학술지 《Cancer Research》를 통해 난치성 위암 세포 내 골지체가 비정상적으로 응축되는 '골지 응축' 현상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골지 응축' 현상은 암 유발 인자인 'YAP'을 활성화해 암의 악성화와 전이를 가속화했다. 특정 분자 하나가 아닌, 세포 내부의 '질서'가 암의 성격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세포 소기관의 형태 자체를 치료 표적으로 삼은 이 연구는 종양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것은 단백질 하나만을 겨냥하는 기존 방식과는 다릅니다. 세포 내부 구조의 질서를 회복시켜 질병을 제어하는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치매를 바라보는 또 다른 창(窓)

알츠하이머 치매 연구에서도 그의 시선은 일관된다. 김 교수는 독성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이전에 나타나는 초기 변화, 즉 '골지 단편화 (Golgi fragmentation)'를 추적한다.

그는 직접 제작한 골지체 변형 마우스 모델을 통해 신경독성 단백질의 증가와 세포 골격 붕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을 검증하고 있다. 치매를 세포 내 시스템 전체의 붕괴 과정으로 해석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증명되지 않은 길을 걷는 집요함

새로운 가설은 늘 의심의 대상이었다. '형태 변화가 원인인가, 결과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는 집요하게 검증했다.

15종의 세포주와 4종의 마우스 모델, 환자 조직 데이터를 확보해 관찰을 기점으로, 다시 치료 표적으로 연결하는데 4년의 시간을 쏟았다.

2025년 수여받은 '약리학 학술상'은 그 고독한 여정에 대한 응답이다. 김 교수는 이 영광을 연구원들에게 돌린다. 실패 속에서도 현미경 앞을 지켰던 이들의 시간이 모두 쌓여 만든 결실이기 때문이다.

연구의 종착지는 언제나 '사람'

김지윤 교수의 지도는 명확하다. 연구가 논문에 머물지 않고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주는 것이다. 그는 골지체 변성을 예후 예측 바이오마커로 확장하고, 흐트러진 구조를 바로잡을 약물을 찾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포 속 미궁에서 출발한 그의 질문은 이제 큰 파동이 되어 의학계를 두드린다. 골지체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 끝에는 결국 사람이 있으며, 우리는 그를 통해 질병을 이해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을 마주하고 있다.



PEOPLE

한결같이, 꾸준히, 언제나 성실하게

여의도성모병원 원무팀 표재원 과장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는 것,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자칫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삶에 적용하기엔 어려운 덕목이다. 이런 부분을 남몰래 실천하고 있는 CMC 구성원이 있다. 여의도성모병원 원무팀에서 19년째 근무 중인 표재원 과장이다. 모범 직원으로 선정될 만큼 신뢰받는 직원이고 조용히 선행을 실천하는 직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게 베푸는 선행이 알려질 때마다 작은 것들이라며 손사래를 치기 바쁘다. 다른 이유 없이 그저 기본을 다하기 위해 경청하고 배려하는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원무팀으로 입사하여 현재 19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이후 환자 민원 관리, 의료 소송 대응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며 의료 행정 전반에 대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현재는 환자 민원 관리, 의료분쟁 및 소송 관련 행정 업무, 관공서 의료비 지원 업무, 독거노인 전원 관련 행정 절차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는 감정 소모가 클 것 같습니다. 민원인의 마음을 빠르게 달래는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저는 항상 민원인의 이야기를 전부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그 분들께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 본인들도 정말 속상한 상태에서 많이 생각하고 오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천천히 전부 들어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성격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고민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라도 문제를 빨리 해결해 버리는게 가장 마음이 편해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선행을 자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행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도 주차요원 선생님들, 안전요원 선생님들께 늘 감사의 뜻으로 커피 한 잔을 드린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작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긴 하지만, 굳이 업무에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는 정도가 전부인 것 같아요. 선행은 굳이 큰 것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저는 작은 실천들이 가장 의미 있는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의료비 지원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치료비 때문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불안한 표정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가능한 모든 지원 제도를 하나씩 확인해 안내해드렸고, 복잡한 서류도 함께 작성하며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해드렸습니다. 며칠 뒤 지원 승인 소

식을 전해드리자 환자분께서 눈시울을 붉히며 “이 도움 아니었으면 치료를 포기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심 어린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가치관, 선님은 무엇인가요?

환자 우선의 치료로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입니다. 환자는 단순히 질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각자 고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환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진료가 어려운 환자가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은 환자가 신뢰하고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최근 주요 관심사나 앞으로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최근 관심사는 ‘환자와의 소통 방식 향상’으로 환자분들과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오신 환자 대부분은 불안해하거나 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조금 더 따뜻한 눈빛으로 다가가고, 환자의 눈높이에서 쉬운 언어로 설명하는 것. 이런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매 순간 체감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법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주위 동료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항상 환자분들을 위해 바쁘게 일하면서도 서로 도와주고 함께 힘든 순간을 버텨준 동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들이 있었기에 성장할 수 있었고, 어려운 상황도 함께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배려와 협력이 환자분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매일 느낍니다. 앞으로도 서로 응원하며 따뜻하게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표재원 과장은 독거노인 전원 업무 중 경제적 사정으로 장례 절차까지 걱정하던 한 환자를 만났다. 그는 환자가 무사히 전원되도록 살폈고, 시간이 흘러 환자가 세상을 떠난 뒤 여러 곳에 연락하고 협조를 구해 장례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단순히 직업적 책무를 넘어 마음을 쏟은 일이었지만, 그는 이에 대해서도 그저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했을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결같이, 꾸준히, 성실하게 기본을 지키는 표재원 과장을 보여주는 일화였다.





승리할 미래에 대한 환

가톨릭중앙의료원 및 직할기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지난 1월 12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708호에서 '2026년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산하 직할기관 경영전략 워크숍'을 실시했다. 워크숍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도전과 성장'을 주제로 시행된 이번 워크숍은 기관별 2025년 주요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2026년 사업계획을 발표, 점검하고 법인 경영방침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또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상임이사 이경상 주교는 총평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성실히 견뎌내고 비전을 제시해 준 교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격려하며, "경영방침인 '기대와 또한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각자 자리에서 용기를 잃지 말고 역동적으로 업무에 임하기를 당부한다."고 마무리했다.

도전으로 혁신을 이루고, 성장으로 탁월함을 완성하다

의생명산업연구원은 '도전으로 혁신을 이루고, 성장으로 탁월함을 완성하다'를 비전으로, 대형 R&D 과제 유치를 확대하고 중대형 기술 이전을 촉진해 성장의 축이 되는 가치를 창출하고, 첨단 연구 인프라 고도화 및 임상·이행성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미래를 여는 혁신의 연구 현장으로 거듭난다. 또한 연구 활동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우수 연구 인력을 육성해 함께 성장하는 연구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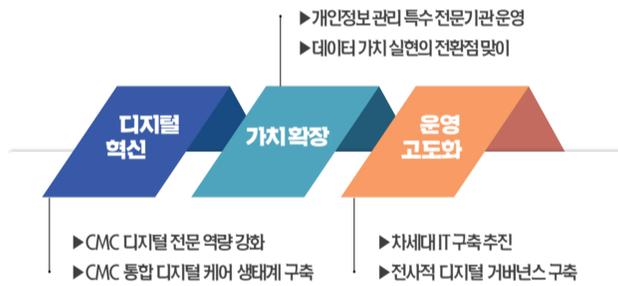


혁신을 품는 도전

가톨릭중앙의료원은 '혁신을 품는 도전'을 목표로, 영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관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CMC의 경쟁력 확보, 질 향상을 위해 노로거버넌스 확립, 연구 강화 지원을 통해 마지막으로 CMC 내 임환자 Fast-Track 모두 발전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

디지털 혁신의 도전, 미래가치를 키우는 성장

정보융합진흥원은 '디지털 혁신의 도전, 미래가치를 키우는 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디지털 혁신, 가치 확장, 운영 고도화라는 전략을 따른다. 먼저 CMC 디지털 전문 역량을 전체적으로 강화하고, CMC 통합 디지털 케어 생태계를 구축한다. 또한 개인정보 관리 특수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통합 DRB 활동의 정착을 진행해 데이터의 가치를 실현해낸다. 나아가 차세대 IT 구축을 추진하고 전사적 디지털 거버넌스를 통해 8개 병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 전인적 돌
▶ 기관별 E
▶ CMC의

▶ 정부의료정책 변화
▶ CMC 본원적 경쟁력
▶ CMC GS 고도화 기반

▶ 신의료기술 도입 및 확산을 위한
▶ AI 의료 거버넌스 확립
▶ 기초의학사업추진단 및 연구 강화

▶ CMC 임환자 Fast-Track 재개
▶ 중점 교육을 통한 모두의 발전 도모

혁신적 융합으로 도전하고, 가치를 키워 미래를 선도하는 병원

서울성모병원은 '혁신적 융합으로 도전하고, 가치를 키워 미래를 선도하는 병원'을 목표로, 이를 위해 3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영성 문화 확산, 조직 문화 혁신 등을 이뤄낸다. 또한 진료 정상화에 기반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진료 역량 및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실현하고 환자 안전과 의료질의 상생을 현실화한다. 나아가 전략적 인력 관리 시 기반 의료 혁신, 연구 역량 강화, 양성자 치료기 도입 및 센터 건립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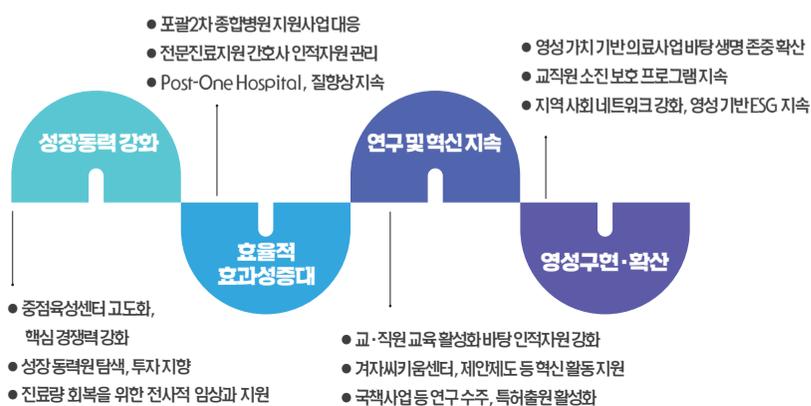
혁신을 향한 도전

성의교정은 '혁신을 향한 도전, 영성 가치에 기반하여 윤리, 인권 감수성, 학생의 영성을 내재화한다. 또한 시 전환에 래 간호인재 양성체계 구축, 통합 6년제 교 인재를 양성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연구 첨단 연구 역량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3 계외의 협력을 통해 국내외 TOP 교육기관

▶ 가톨릭 인간 존엄성에 기반한 윤리-인권 감수성 강화
▶ 국제사회 연대 기반 나눔과 돌봄의 실천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참사랑요역 순환계획 수립

영성과 혁신으로 여는 미래

여의도성모병원은 '영성과 혁신으로 여는 미래'를 경영 방침으로 삼아 CMC 모병원으로서의 가치를 재확립한다. 먼저 중점 육성센터 및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동력원을 탐색하며 진료량 회복을 도모해 성장 동력을 강화한다. 또한 인적자원 관리 고도화, 질 향상 지속 등 분야별로 효율적 효과성을 증대한다. 연구와 혁신의 지속을 통해 교육, 거주씨키움센터 및 제안 제도, 연구 수주 및 특허출원 등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영성을 구현하고 확산해 영성 가치에 기반한 의료사업을 바탕으로 생명존중 정신을 확산한다.



▶ 데이터 기반 연구 지원 체계 강화
▶ 간호대학 '간호기초혁신연구원, 설립 추진
▶ 연구분석 지원 서비스 영역 확대

▶ 첨단 연구 역량 확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2026 경영전략 워크숍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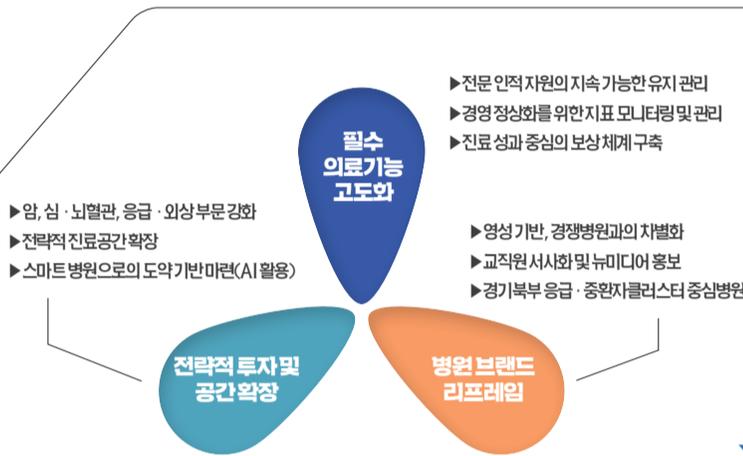
상임이사 이경상 주교와 각 기관장 및 주요 보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각 기관별 사업 계획과 전략 공유를 통한 상호 시너지를 도모하고, 협업을 강화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용기는 단순히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총평을 진행 중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상임이사 이경상 주교

가치를 키우는 성장

‘용기는 도전, 가치를 키우는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을 지원하고 의료선교활동 정부 의료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한다. 나아가 신의료기술 도입, AI의 활용을 통해 혁신을 이루고 미래를 지향한다. 마지막으로 ESG 경영을 재개하는 동시에 중점 교육을 통해 성과를 높인다.



경영 정상화 도전 & 그 이상의 성장

의정부성모병원은 ‘경영 정상화 도전 & 그 이상의 성장’을 비전으로, 영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의료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먼저 도전으로 응급실의 정상 기능 회복, 외래 환자 일 평균 3,000명, 입원 환자 평균 병상가동률 85%를 목표로 한다. 나아가 성장 목표로 인적 자원 관리, 지표 모니터링 및 관리 보상 체계 구축을 통해 필수 의료 기능을 고도화한다. 또한 지역밀착형 특수 부문 진료를 강화하고, 공간 확장 및 AI 활용 등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병원 브랜드를 리프레이밍해 영성에 기반한 차별성을 강조하고, 경기 북부 응급·중환자 클러스터 중심병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

환자가 신뢰하고 부천이 의지하는 지역책임병원

부천성모병원은 ‘환자가 신뢰하고 부천이 의지하는 지역책임병원’이 돼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생명 존중의 안전한 진료를 제공하며 윤리적 조직문화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성에 기반한 윤리적 의료를 실천해 가톨릭병원의 본질적 사명을 수행하고 지역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가톨릭 영성을 실천한다. 또한 책임감 있는 지역 대표 병원으로서 전문의 인력을 기반으로 고난도·중증 진료를 시행하는 동시에, 뇌혈관 선도병원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응급실 기능을 강화한다. 나아가 시설 개선, 스마트병원 구축,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혁신을 이루고, 내부 교육 및 포용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함께 성장한다.

영성과 신뢰

경쟁력과 가치

혁신과 미래지향

함께 이루는 성장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성장-혁신 경영의 해

은평성모병원은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성장-혁신 경영의 해’를 방침으로, 의료수익 4,800억을 달성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성 교육을 확대하고 실천해 사회에 공헌하며, 진료역량 강화를 통해 중증도 향상, 혁신 경영을 지향한다. 또한 이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하며 집중 육성 분야를 지정, 관리하고, 비용 관리 강화, 의료질 향상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기반을 마련한다. 나아가 AI 관련 거버넌스 체계 정립, RFID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병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내부적으로 교직원 단합 및 성장을 지향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미래를 여는 성장

‘미래를 여는 성장’을 위해 먼저 가톨릭 강화 및 국제적 나눔을 실천하여 교직원 및 대외 대응,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미래 교육과정 추진을 통해 이를 대비할 미래 의료 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조직 운영을 혁신하고, 학술대회 개최 등 세 가지가 되어 기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

- ▶ 원내 겨자씨키움센터 자문단 운영
- ▶ 원내 동호회 활성화
- ▶ 함께하는 ESG 경영

비용으로 실천하는 영성

- ▶ 영성 교육 확대와 실천 장려
- ▶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공헌활동 실천

스마트 & AI 웰스케어

- ▶ AI 관련 위원회 신설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 ▶ RFID 스마트물류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물류관리 혁신
- ▶ 모바일 입원 수속 시스템 적용 확대
- ▶ AI 검색 환경에 대응하는 병원 홈페이지 정비

상급종합병원 경쟁력 강화

- ▶ 중증도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한 집중 육성 분야 관리
- ▶ 혁신 경영을 위한 수익 증대 방안
- ▶ 진료 역량 향상을 통한 신환 유치 및 외래 활성화
- ▶ 지역 인구 특성을 고려한 산부인과 육성
- ▶ 응급의료체계 강화
- ▶ CMCQS 기반 QPS 체계 강화와 의료 질 향상

가톨릭 가치 실현

교육 혁신과 AI 인재 양성

환경 경쟁력 강화

- ▶ 가톨릭의대 RISE 사업단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 ▶ DK21 기반 미래 간호 인재 양성 체계 구축
- ▶ 의과대학 통합 6년제 교육 과정 개편 추진
- ▶ 의과대학 학석사 연계 과정 도입
- ▶ 2026 의사국가고시 성적 향상 전략 수립

- ▶ 기관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예산 운영 효율화 계획
- ▶ AI 기반 스마트물류혁신모델(NURD) 구축
- ▶ 2026 WHOCC Annual Meeting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
- ▶ 성의교정 국제 경쟁력 및 학생 교류 활성화



겨자씨키움센터, 2026년 사업화 트랙 본격 추진

1월 29일 발대식 개최, 3~5기 미래위원 중 사업화 추진 대상 11개 팀 선발

지속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각 팀에서 실제 제품 생산 단계까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사업화 트랙은 실제 기업을 매칭해 시제품 제작까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센터 중장기 비전의 구현으로, 기존 공모전 트랙과의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센터의 운영을 한 단계 고도화하려는 시도이다.

사업화 트랙의 참여팀은 미래위원 3~5기 기수 중 사업화 추진 대상 기준에 따라 선발된 총 11개 팀으로, 1월 2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기업 매칭 프로세스를 본격 진행하며, 8월 KHF 헬스케어 박람회 진출을 목표로 실제 사업화 구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3기 미래위원 수료팀 ▲제로디는 치과 삼킴방지 기구를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까지 구체화할 예정이다. 4기 미래위원 수료팀 중 ▲피식널스 ▲Kollok ▲간호베이션은 각각 침상·폴대 탈부착 고정장치 개발, 기침 측정 웨어러블 기기 개발, 간호용품 개발 등의 기존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화와 실제 시제품 생산을 목표로 사업화 트랙에 참여하게 된다. 가장 최근에 미래위원 활동을 수료한 5기에서는 ▲스무스(환자 이송을 위한 레일형 슬라이딩 도구 개발) ▲Easy-ABGA(초음파 기반 동맥혈 자동 채혈기기 개발) ▲오리지널스(AI기반 가정용 완화간호사 프로그램 개발) ▲CAUTI-ZERO(휠체어 거치용 소변백 케이스 개발) ▲TalkTalk(의료진간 의사소통 및 기록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 개발) ▲력키비키(간호용품 개발) ▲Fastriage(응급실 내원 환자 중증도 분류 알고리즘 개발)팀들이 시제품 제작

및 8월 KHF 헬스케어 박람회, 기술 이전까지의 목표로 사업화 트랙에 참여한다.

이번 사업화 트랙은 겨자씨키움센터와 시 기반 산학연 협업 전문 매칭 서비스 업체인 (주)디씨클이 함께 기업 매칭을 지원한다. (주)디씨클은 2024년 1월 설립한 이래,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연구성과 홍보(PR) 및 연구개발(R&D) 파트너 매칭 플랫폼 개발에 역량을 투자해 온 스타트업이다.

겨자씨키움센터는 기존 공모전 트랙과 이번 새롭게 출범하는 사업화 트랙의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센터의 혁신 창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실제 사업화 단계 지원을 통해 참여하는 팀의 창업 및 기술이전 성과 달성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혁신적인 도전 문화를 전 기관에 정착시켜 창업적인 재의 발굴과 유지에 기여하고 외부로부터의 창업 지원이 아닌 기관 내부의 실천형 실행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겨자씨키움센터만의 차별화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보건정책실장이자 겨자씨키움센터 운영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지상술 신부는 "겨자씨키움센터의 사업화 트랙이 국내 의료계 혁신 생태계의 모범적 사례로 자리 잡길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사업화 트랙의 제도적 개선과 지원 방안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겨자씨키움센터는 사업화 트랙 11개 팀과 함께 2026년을 사업화 본격화의 해로 삼고, 1월 2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기업 매칭 프로세스를 진행, 8월 KHF 헬스케어 박람회 진출을 통해 참여팀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공동 운영하는 겨자씨키움센터(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 김대진 교수)가 사업화 트랙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1월 29일 오후 사업화 트랙 발대식을 개최하고 사업화 트랙 1기 출범을 알렸다.

겨자씨키움센터는 2021년 2월 개소 이후 헬스케어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인재 육성에 앞장서기 위해 매년 '혁신·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그 아이디어의 구체화·사업화를 수행하는 '미래위원'을 선발해 오고 있다. 센터는 선발된 미래위원들의 아이디어 구현을 위해 컨설팅,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센터에서는 아이디어 발굴 단계 이후 사업화에 대한

Health&Issue

뼈와 거북목 증후군



메시, 호날두, 손흥민 선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세계적인 실력의 축구선수라는 것 외에 모두들 거북목이 의심된다는 점이다. 거북목 증후군은 목 통증과 두통을 유발해 생활을 불편하게 만든다. 건강한 일상을 되찾아줄 거북목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과 예방책에 대해 알아보자.

거북목 증후군은 목의 척추뼈가 정상적인 S자 굴곡을 유지하

지 못할 때 나타난다. 우리 목뼈는 무거운 머리 하중을 버티기 위해 스프링처럼 굴곡을 형성하고 있지만, 거북목이 발생하면 목뼈가 일자형으로 변형되어 거북이처럼 목이 앞으로 빠지게 된다.

이 증상은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외국에서는 이를 아이폰(iPhone)과 자세(Posture)를 합쳐 'iPosture syndrome'이라 부르기도 한다. 스마트폰을 볼 때 목을 앞으로 굽히면 목뼈가 받는 하중은 각도에 따라 다르며 최대 27kg이다. 정상인은 신경을 쓰면 바른 자세로 돌아오지만, 이미 목뼈가 일자형으로 굳어버리면 일상에서 계속 거북목을 유지하게 되고 어깨 통증, 두통, 작업 능력 저하, 팔저림 등을 유발한다.

가장 정확한 진단법은 X-ray 촬영이다. 목뼈가 굴곡을 유지하고 있는지, 변형되어 일자도 되어 있는지를 X-ray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예방 및 교정의 경우 바른 자세를 취함으로써 가능하다. 모니터 볼 때는 의자에 앉아 허리를 세우고 등받이에 엉덩이를 깊

숙이 넣어야 하며, 눈 높이와 모니터 상단 높이를 맞춰야 한다. 화면 중앙이 눈보다 15도 정도 아래에 있는 것이 이상적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기기를 약간 올려서 사용하거나, 귀는 고정한 상태에서 턱을 살짝 당겨 머리와 목만 숙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거북목 예방과 치료의 핵심은 척추의 이상적인 S자 굴곡을 유지하고 척추뼈의 혹사를 막는 것이다. 다른 특별한 치료는 대부분 불필요하며, 바른 자세와 적절한 운동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 의정부성모병원 내분비내과 분과장 정채호 교수

진료 분야 감상선질화/골다공증, 당뇨병, 부신질환, 뇌하수체질환, 비만

진료 시간 [오전] 화, 금 [오후] 월, 목





서울성모병원 '자연임신 다섯쌍둥이' 공식 홍보대사 위촉

생명 존중의 가톨릭 의료 알리는 새 얼굴... 저출생 시대 속 '가족의 소중함' 알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2024년 9월 본원에서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 '김새힘·김새찬·김새강·김새별·김새봄'(이하 다섯쌍둥이)를 병원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임신·출산·신생아 집중치료에서부터 성장 발달까지를 아우르는 모자보건 전 주기의 가치를 상징하는 다섯쌍둥이

는 향후 2년 동안 서울성모병원의 홍보대사로 병원이 지향하는 '생명을 존중하는 병원'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장 정낙균 교수는 "병원에 선물처럼 찾아온 다섯쌍둥이아말로 저출생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홍보대사에 더 없이 적합하다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는 어린이병원을 만

들어 나갈 것."이라며 다짐을 밝혔다.

다섯쌍둥이의 병원 정기 검진일에 맞춰 진행된 위촉식에서 김준영·사공혜란 부부는 "우리 아이들이 서울성모병원의 홍보대사로 의미 있는 역할을 맡게 되어 큰 영광."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의정부성모병원 경찰·소방·교정 공무원 위한 '24시간 전담 핫라인' 구축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제복 입은 영웅들을 위한 패스트 트랙 가동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을 경우, 24시간 언제든지 최우선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전담 핫라인'과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가동한다.

의정부성모병원은 1월 9일 본관 2층 임상강의실에서 경기

북부지역 치안과 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신속하고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을 비롯해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 강대훈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박진열 의정부교도소장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경기북부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복 입은 공무원(경찰, 소방, 교정)들이 현장에서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병원 도착 즉시 전문 의료진의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핫라인을 상시 운영하고 신속 처리 절차(Fast Track)를 적용하는 것이다.

협약 기관들은 향후 실무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협력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빈틈없는 공조 시스템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약, 강력 범죄 대응, 화재 진압 등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한다.

이태규 병원장은 "경기북부지역 응급 및 외상 환자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



는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에 '특별한 의료 보상'으로 화답하고자 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북부 필수의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고, 공공의료 거점 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은평성모병원 '영성실천상' 첫 시상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은 최근 시무식과 함께 열린 월례조회 '함께 여는 한 달'에서 제1회 은평성모병원 영성실천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은평성모병원 영성실천상은 병원의 핵심 가치와 가톨릭 영성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긍정적인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한

부서 및 개인을 발굴해 포상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가톨릭 중앙의료원 산하 병원 가운데 최초로 제정된 상으로, 올해 처음 시상했다.

영성실천상은 단순한 봉사 시간이나 활동 실적이 아닌, 봉사의 지속성과 헌신성, 공동체에 미친 긍정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수상자는 영성구현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 시상에서 단체상은 병원 성가 동호회 '라우다토시', 개인상은 적정진료관리팀 송은정 UM이 각각 수상했다. '라우다토시'는 원내 미사와 각종 병원 행사에서 성가 합창 등을 통해 꾸준한 재능 기부 활동을 펼치며 공동체 의식 강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송은정 UM은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영성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영성 실천의 모범을 보이며 타 교직원들에게 귀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은평성모병원은 앞으로도 영성실천상 시상식을 통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조직 전반에 확산하고, 교직원 간 공동체 의식과 팀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가톨릭중앙의료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특수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보건의료 데이터와 의료 마이데이터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를 지닌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서울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로봇수술 7,000례 달성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는 최근 비뇨기 로봇수술 7,000례를 달성하고 행사를 개최했다. 2024년 5,000례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현재 총 7,270례를 기록 중이다. 이는 서울성모병원이 선도적인 비뇨기 로봇수술 기관임을 입증하는 성과이며, 전체 수술의 80% 정도가 고난도 중증 암 치료에 집중된 점을 통해 서울성모병원 의료진들이 풍부한 임상경험과 숙련도를 갖춰 있음을 증명한다.

2025년 의료정보보호 챌린지 1위 달성



서울성모병원이 최근 '2025년 의료정보보호 챌린지'에서 1위를 달성하며, 의료기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자체 대응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번 대회는 최근 급증하는 의료기관 대상 랜섬웨어 등에 대비해 분석·대응이 가능한 인력 양성,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하는 대회로, 13개 병원이 참가했다. 이론과 실습으로 나뉜 프로그램 중 서울성모병원이 전 영역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어

1위를 기록하며, 병원급 의료기관 보안체계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부천성모병원

성탄 나눔 행사 개최



부천성모병원은 성탄절을 맞아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성탄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성탄절을 병원에서 맞이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다. 특히 입원 중인 어린이 환아들과 말기암 환자, 보호자 등 병원 구성원 모두가 성탄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나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제29회 QI발표회 개최



부천성모병원은 최근 제29회 QI(Quality Improvement) 최종 발표회를 개최했다. 부천성모병원은 1997년 QI실을 개설한 이래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QI활동을 전사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는 구연발표와 포스터 전시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일반촬영 검사 시 낙상방지 보조기구를 통한 낙상 예방 활동을 진행한 '체어맨'팀이 최우수상을 수상, 그 외 5개 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은평성모병원

가남 의료기기 RFID 통합관리 업무협약 체결

은평성모병원은 최근 (주)오페라살루타리스, 온라인팩(주)과 가남 의료기기 RFID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되는 RFID 통합관리 시



스템은 의료진의 가납 재고 관리 부담을 줄이고, 의료진이 환자 치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젝트는 1월부터 7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8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성빈센트병원

고위험 산모·태아 집중치료실(MFICU) 개소



성빈센트병원은 최근 고위험 산모·태아 집중치료실(MFICU)을 공식 개소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및 41병동(산부인과 병동)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개소한 MFICU는 고위험 산모와 태아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첨단 장비와 시설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입원 및 분만 환경을 제공한다. 성빈센트병원은 이번 개소를 통해 경기 남부 지역 모자 보건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대전성모병원

지역 무료급식소에 후원금 전달



대전성모병원 간호부는 최근 지역 무료 급식소인 효심정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대전성모병원 간호부 소속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성금으로, 무료 급식소 내 의료 소모품 구입과 영양식 제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민승희 간호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동정

* 기관별 / 가나다 순



대한신경모니터링학회 회장 선임



서울성모병원 갑상선내분비외과 배자성 교수가 대한신경모니터링학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해당 학회는 갑상선 및 두경부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손상을 예방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한 '수술 중 신경 모니터링' 기술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학술 단체다. 배 교수는 그간 갑상선암 수술 분야에서 쌓아온 임상 성과와 헌신적인 활동을 인정받아 회장직을 맡게 되었으며, 임기는 오는 2026년 1월부터 1년간이다.

부천시장 표창 수상



부천성모병원 중환자간호팀 임지영 간호사가 최근 지역사회 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천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임 간호사는 온열질환 담당자로서 2024~2025년 폭염 기간 동안 발생한 다수의 온열질환 사례를 관리·보고하며, 환자 정보의 기록과 보건소와의 실시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폭염 피해 현황 파악과 예방대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

개인 로봇수술 1,000례 달성



은평성모병원 산부인과 이용석 교수가 개인 로봇수술 1,000례를 달성했다. 이 교수는 2019년 개원과 동시에 로봇수술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부인암 치료를 진료의 핵심 분야로 삼아 임상 경험과 수술 역량을 지속적으로 쌓아왔다. 이번 기록은 부인암 치료에 집중해 온 이용석 교수의 전문성과 임상 경험이 축적된 결과다.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선정



인천성모병원 신장내과 채승윤 교수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임상현장 의사과학자 연구 멘토링 사업)'에 선정됐다. 채 교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당뇨병성 신장병증을 중심으로 한 신장 질환의 진행 기전과 대사 이상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의료 현장의 문제를 연구로 연결할 수 있는 채 교수의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다.

대한수면학회 회장 취임



성빈센트병원 이비인후과 박찬순 교수가 제 16대 대한수면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대한수면학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면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수면건강증진을 위해 연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면의학 학술단체다. 박 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대한수면학회를 이끌 예정이며, 2028년부터는 2년간 대한수면호흡학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수면의학의 발전에 계속 이바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성빈센트병원 영상의학팀 백명기 수석이 환자안전 향상과 학술·봉사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는 백 수석이 방사선사로 근무하며 조영제 사용 및 CT 검사 관련 환자안전 관리와 업무매뉴얼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검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해 온 결과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과 대한방사선사협회 경기도회 회원 교육 등에 힘쓴 부분도 높이 평가됐다.

간호 대학

Palliative Care Nursing 교육 개최

가톨릭대학교 호스피스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2월 5일 몽골 국립암센터(National Cancer Center of Mongolia)에서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WHO WPRO) 및 WHO 몽골 국가사무소와 협력하여 'Primary Health Care Setting을 위한 Palliative Care Nursing 국제 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몽골 완화의료 분야 간호사 15명이 참여했으며, 김수정 교수(가톨릭대학교), 안창호 교수(서울성모병원), 김영주 간호사(인천성모병원) 등 한국의 완화의료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완화의료 기본 개념부터 통증·증상 관리, 의사소통, 임종 및 사별 돌봄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주제들로 구성됐다.

연구소는 "이번 교육이 몽골 간호사들의 완화의료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제협력 기반의 완화의료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호대학 제42회 졸업 25주년 홈커밍데이 성료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은 최근 제42회 졸업 25주년 홈커밍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간호대학 전체 교수진과 조교, 제42회 졸업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모교의 발전을 함께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간호대학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참석자 전원이 함께한 시작 기도로 문을 열었다. 이어 간호대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졸업 25주년을 맞은 동문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모교와 동문 간의 변함없는 연대와 신뢰를 강조했다.

이날 교학부학장은 간호대학의 교육·연구·임상 협력 등 주요 현황과 미래 비전을 소개하며 간호대학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한 방향성을 공유했으며, 제42회 졸업생을 대표해 간호대학 발전기금 전달식도 진행했다.

행사의 마지막은 참석자 전원이 함께한 마침 기도로 마무리됐다. 간호대학은 앞으로도 동문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간호 전문 인재 양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육기관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인천 성모

배낭경 간호사, 부평역서 쓰러진 시민 생명 구해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배낭경 간호사가 최근 부평역에서 쓰러진 시민에게 신속한 응급조치를 시행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배낭경 간호사는 지난 11월 23일 오후 부평역 인천지하철 승강장에서 전철을 기다리던 중 60대 남성이 갑자기 정면으로 쓰러져 얼굴을 바닥에 부딪히는 장면을 목격했다. 즉시 남성의 상태를 확인한 뒤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필요한 응급조치를 이어갔다. 또한 남성의 눈 부위 출혈을 확인한 배낭경 간호사는 직접 지혈했고, 남성이 의식을 찾은 후에는 뇌출혈 위험을 설명하고 안전하게 눕힌 후 안정될 때까지 상태를 확인했다. 이후 도착한 119 구급대에 환자를 안전하게 인계했다.

현장을 떠난 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이 관할 구청을 통해 병원에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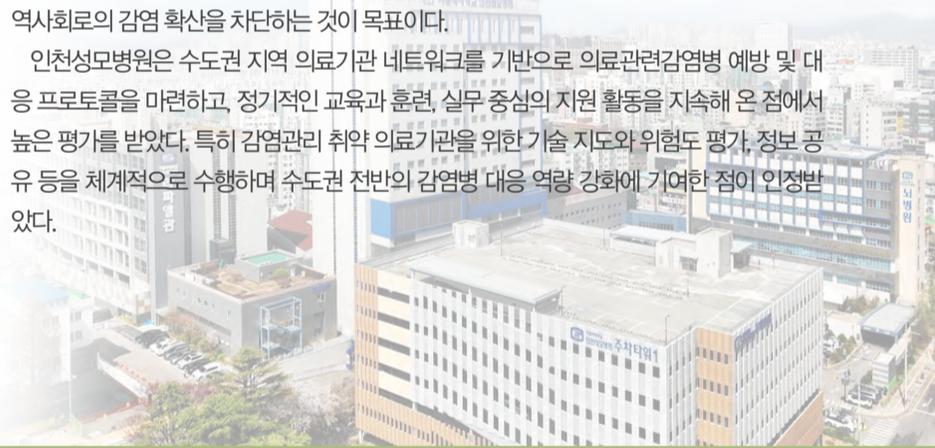
배낭경 간호사는 "평소 교육받은 대로 움직였을 뿐이지만 시민의 생명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 앞으로도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의료관련감염병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운영사업 우수상 수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한 '2025년 의료관련감염병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운영사업'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단위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의료관련감염병의 예방·관리와 대응 체계를 체계화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이다.

인천성모병원은 수도권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의료관련감염병 예방 및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 실무 중심의 지원 활동을 지속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감염관리 취약 의료기관을 위한 기술 지도와 위험도 평가, 정보 공유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수도권 전반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한 점이 인정받았다.



성빈 센터

의료질평가 5년 연속 전 영역 '1등급'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터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5년 의료질평가'에서 5년 연속 전 부문 1등급을 획득했다.

의료질평가는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측정해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2024년 1년간 진료 실적이 있는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37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성빈센터병원은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에서 상위 10% 병원에 해당하는 최우수 1등급(1-나)을 받았으며 ▲교육수련 ▲연구개발 영역에서도 1등급을 받아 5년 연속 '전 영역 1등급'을 기록했다.

경기 남부 지역 최초의 의과대학병원인 성빈센터병원은 지역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안전한 진료환경과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바탕으로 고난도 중증질환에 진료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대전 성모

QI경진대회 성료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최근 '제24회 QI(Quality Improvement)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구연발표 부문과 포스터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진행한 1년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개 팀이 참가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인터벤션 시술 관련 교육, 공유 시스템 개선을 통한 시술의 안전성 강화 및 내부고객 만족도 상승'을 주제로 발표한 영상의학팀이 차지했으며, 그 외 3개 팀이 우수상을, 3개 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한 지난해 활동을 시작한 이후 꾸준히 실천으로 의료질 향상에 기여한 팀에게 수여하는 CQI 포상(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은 '저연차 간호사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방법 개선'을 발표한 제중환자실에 영예가 돌아갔다.

강전용 병원장은 "QI경진대회는 우리 병원 구성원들이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현장의 작은 개선이 환자의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소아응급의 골든타임 서울성모병원이 지킵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 수도권 소아 중증 치료의 새로운 '안전망'을 구축하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선정



24시간 전문의 상주



패스트트랙·핫라인 가동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 연계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사태로 인한 '소아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신규 선정**되며 수도권 소아 응급 의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부상했다. 서울 서남부 및 인접 수도권 지역은 그동안 중증 소아 환자를 수용할 전문 센터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선정을 통해 빈틈없는 의료 안전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병원은 이미 해당 지역 환아들의 실질적인 거점 역할을 수행해온 역량을 인정받아 이번 지정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아 응급 시스템을 가동하게 된다.

서울성모병원은 단순한 센터 지정을 넘어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기존의 24시간 소아 전담 전문의 진료 체계를 기반으로 중증 소아청소년 응급환자를 위한 핫라인과 패스트트랙을 확대하는 동시에, 최종치료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오픈을 목표로 음압 격리 병상, 소아 전용 중환자실(PICU), 전용 입원실 등을 확충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감염병 유행 등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고도화된 진료 환경을 완성하겠다는 병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도약은 **지난해 12월 개원한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과의 시너지를 통해 완성**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소아혈액종양센터와 50병상 규모의 신생아중환자실(NICU) 등 기존의 독보적인 소아 진료 인프라와 응급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진단-치료-수술-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최선의 치료 생태계를 구현할 방침이다. **서울성모병원장 이지열 교수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적기에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안전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아 중증 진료 확대에 대한 사명감을 전했다.

여의도성모병원

보이는 ARS 보라서비스



“보이는 전화
보며 누르세요”

보이는 ARS 보라



‘보라’를 이용하시면

-  **별도의 앱 설치 및 가입 없이** 성명, 주민번호 입력만으로도 예약이 가능하며, 병원 업무시간 상관없이 24시간 진료예약이 가능합니다.
-  **콜센터 상담사 연결을 위한 대기 없이 진료예약** 가능하며, 증상 및 진단명만 입력해도 진료 가능한 의사를 검색할 수 있어 손쉬운 예약이 가능합니다.
-  진료예약 외에도 **진료일정 확인, 예약변경, 취소, 병원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661-7575

콜센터 연결이 어려울 때

‘보라’를 이용해보세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촬영하세요 →

여의도성모병원 보라





전화예약
1661-7500
평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오후 12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 획득

www.cmcujb.or.kr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제6회 생명의 봉사자' 시상식 개최 응급의료 영웅 7인 포상

경기북부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 응급환자 신속 이송 공로 기려
이태규 병원장, 우연호 행정부원장 등 참석해 감사장과 상금 전달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병원장 이태규)이 지난 1월 16일(금), 본관 4층 회의실에서 '제6회 생명의 봉사자'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경기북부 지역 응급환자 생명 보호에 헌신한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고 21일 밝혔다.

'생명의 봉사자' 포상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적절한 처치로 환자의 생존을 향상에 기여한 현장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번 시상식에는 이태규 병원장, 우연호 행정부원장, 김영중 대외의료협력팀장 등 병원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하여 수상자들에게 직접 감사장과 상금을 전달하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경기북부 각 지역 소방서에서 추천된 총 7명의 정예 대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송은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김하웅 (양주소방서)

김현진 (동두천소방서)

임성용 (연천소방서)

엄기민 (의정부소방서)

이수지 (포천소방서)

정기용 (남양주소방서)

의정부성모병원 이태규 병원장은 "긴박한 응급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봉사자"라며, "앞으로도 소방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기북부 권역 응급의료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성모병원은 매년 '생명의 봉사자' 시상식을 통해 지역사회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경기북부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천성모병원을 만나는 쉬운 번호

1577-0675

영역 치료



건강, 그 이상의 행복 실현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bucheon.or.kr

3차 유방재건술

합병증 발생 시 자가조직을 이용한 새 재건술



3차 유방재건술이란?

✓ 유방암 수술 후 보형물을 이용하여 1차 또는 2차 유방재건을 시행했으나 **염증, 피부 괴사, 비대칭, 보형물 문제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환자 본인의 조직(자가조직)을 이용해 새롭게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입니다.**

✓ 이런 경우 3차 재건이 필요합니다.

- 보형물 주변 염증 또는 감염이 반복되는 경우
- 양측 유방 모양의 심한 비대칭

- 피부나 연부조직이 약해 보형물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재건 후 통증이나 불편감이 지속되는 경우

◎ 1차 재건: 유방절제와 동시에 재건

→ "집을 새로 지으면서 인테리어까지 한 번에"

◎ 2차 재건: 1차 재건을 보정·수정

→ "집 리모델링"

◎ 3차 재건: 기존 재건의 추가적인 보정·수정이 어려울 때 시행하는 재건

→ "무너진 집을 철거하고 뼈대부터 다시 세우는 것"



**3차 유방 재건술
전문의료진**

성형외과 이중호 교수
오전-수, 목
오후-월



전화예약
1811-7755
 평 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12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www.cmcep.or.kr

가정의학과 본관 3층 확장 이전

넓고 쾌적한 외래 환경 제공

전용 검사실·교육실·상담실 조성



평생 건강 주치의가 제공하는 1:1 맞춤 진료



송찬희 교수

암 치료후 건강관리,
 만성질환 통합관리, 골다공증,
 대사증후군, 만성피로,
 만성통증, 임상영양, 비만

[오전] 월, 화, 목
 [오후] 화, 수
 *토 3주 오전



이주영 전담의

만성질환 통합관리, 골다공증,
 대사증후군, 만성피로,
 만성통증, 비만

[오전] 수, 금
 [오후] 월, 수, 목
 *토 1주 오전



옥진주 전담의

1차진료, 여행전/후 진료,
 예방접종, 건강증진, 국제진료

[오전] 금
 [오후] 금
 *토 1,3주 오전